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히브리서 12:1-8)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4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5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구든지 받는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언약이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성경에만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답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답을 갖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답 그대로 우리 인생 중에 행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원죄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죄의 배후에는 처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길도 약속 따라 사는 삶에 있습니다. 평범한 말이고, 늘 듣는 말이지만 어느 날 발견되고, 정말 답이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즉시로 답이 나면서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말씀 하나 발견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항상 세상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원죄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게 됩니다. 원죄 이후에 일어난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안좋은 모든 것은 모두 원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근본 문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분이 3직의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답으로 살면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이 안에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답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구분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알고 보면 인생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것을 잘 안 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3직으로 근본 문제 3가지를 꺾는 것입니다. 사단은 24시간 역사합니다. 나도 24시간 3직으로 영적 전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직 안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평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놀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30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며,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게 발견돼야 내 것이 되는 점입니다. 내가 3직으로 살고자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본래 신자는 매일 새출발해야 합니다. 좋아도, 틀려도, 안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 잡는 사랑의 매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볍게도 생각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고 하셨습니다. 잠언 3:11-12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나의 아들이 잘못되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버지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징계는 깊은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기회만 되면 옆으로 빠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면 예외 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어려움이 있기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원래 복음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로 때려서라도 못 가게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복음 안에 있으면 문제 때문에 저주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약속의 피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역전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때 온 어려움이 나의 잘못으로 온 하나님의 징계인지, 혹은 단순한 나의 실수인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과 고난은 예

외 없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상세히 설명한 것이 그리스도 3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확실히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외 없이 더 깊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지고, 그럼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더 큰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초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뛰어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복음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어떤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역전될 수밖에 없으며, 박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진짜 언약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많은 예를 들어 성경에 설명하십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날에 할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망대를 세우고, 누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망대는 내 안에 서 있는 확실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실히 언약이 되어져 있으면 누구든 망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영안이 열리게 되며, 보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니, 응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양심적으로도 보인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이 언약, 망대를 누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과정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모두 과정일 뿐이니 답을 찾으라. 문제는 왔는데 답을 못 찾으면 힘 빠지게 됩니다. 그냥 오래 두면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답이 있으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리스도의 3직입니다. 이 답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무조건 완전한 답입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에 답이라는 느낌이 내게 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누리는 자에게 이 답은 확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진 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문제가 생기면 돈을 구한다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약 없는 삶인 것입니다. 언약 없는 삶은 힘들게 되고, 사단에 당하게 됩니다. 한발 물러서서 언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어려움은 모두 길이 되고, 죽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응답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경험한 분들은 감사만이 남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최종 시간표였습니다. 모세가 살인 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다녔습니다. 대부분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나 하나님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적인 이정표를 만드는 시간표를 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응답이 없는 때가 아니고, 중대한 시간표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막히는 것이 아닌 진짜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시대적인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확신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포함한 모든 어려움은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징계인지, 내 잘못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역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언약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든 운명, 저주는 반드시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응답을 통하여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깹니다. 모든 운명과 저주를 역전하게 됩니다. 원죄의 권세를 꺾게 됩니다. 그렇게 해방과 정복을 누리게 합니다.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날,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4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노예된 것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방법은 3직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그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수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 중 처음 태어난 것들을 골라 죽이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곡성이 들리고, 방의 큰아들도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에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중요한 답을 발견하며, 정복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에겐 성취하시며,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예비 된 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사단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우리는 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단의 머리, 원죄의 권세를 깹니다. 오늘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 3직을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